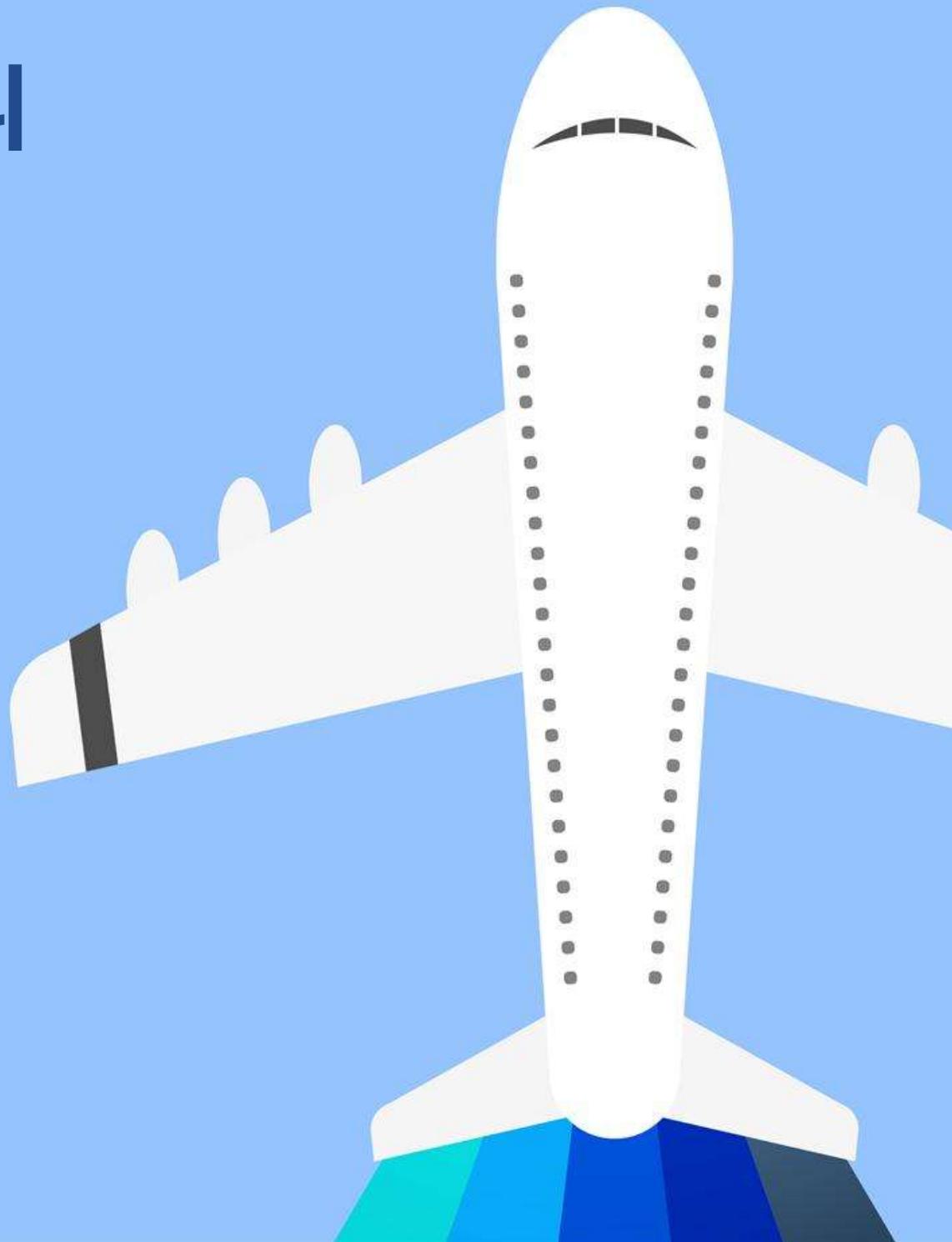


2021 해외출장 가이드

인도 뉴델리



목 차

I. 인도 개황	01
II. 인도 정치·경제 동향	03
III. 한-인도 무역·투자 동향	04
IV. 인도 경제 특징	07
V. 인도 생활 정보	12
VI. 주요 유적 및 명소	14
VII. 주요 기관 연락처	18
VIII. 인근 호텔 정보	19

1. 인도 개황

1. 국가개요

국명	인도 (Republic of India)
위치	남아시아 (동경 68.7-97.25도, 북위 8.4-37.6도)
면적	3,287,263km ² (한반도의 15배, 남한 면적의 33배)
기후	열대 몬순, 온대 기후, 고산 기후 등
수도	뉴델리 (New Delhi)
인구	13억 9,000만 명 ('21, UN)
주요 도시	뉴델리, 뭄바이, 콜카타, 첸나이, 벵갈루루, 암다바드, 푸네, 찬디가르, 하이데라바드, 파나지
민족	인도-아리안계(72%), 드라비다계(25%), 몽골계 및 기타(3%)
언어	힌두어, 영어, 주요언어 21개 등
종교	힌두(80%), 이슬람(13%), 기독교(2.3%), 시크교(1.9%), 기타(2.8%)
건국(독립)일	1947. 8. 15 (영국으로부터 독립)
정부 형태	내각책임제
국가 원수 및 실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원수(대통령) : 람 나트 코빈드 (Ram Nath Kovind) ○ 취임일 '17. 7. 25 (5년 임기) ○ 총리 : 나렌드라 모디 (Narendra Modi) ○ 취임일 : '14. 5. 26 ('19. 5. 19 연임) ○ 소속 정당 : 인도인민당 (Bharatiya Janata Party)

* 자료: Census of India, Ministry of Home Affairs, 인도통계청, CIA, World Bank

2. 경제지표

G D P	US\$ 2조 7,088억 ('20년, IMF)		
경제성장률	연간	-7.3% (2020/21 회계연도, 인도통계청)	
	분기	20.1% (2021/22 회계연도 4~6월, 인도통계청)	
1인당 GDP	US\$ 1,964('20년, IMF)		
실업률	8.32% ('21년 9월, CMIE)		
소비자물가상승률	5.30% ('21년 9월, 인도 상공부)		
화폐단위	Rupee		
환율	US\$ 1= RS. 74.17 ('21년 9월 29일)		
외채	US\$ 5,600억 ('21년 6월, 인도 재정부)		
외환보유고	US\$ 6,425억 ('21년 9월 10일, RBI)		
한 - 인도 교역 규모	구분	2020년	2021년 1-8월
	수출액(증감)	11,937(△ 20.9%)	9,954(+42.3%)
	수입액(증감)	4,901(△ 11.9%)	5,007(+51.5%)
자료: 무역협회 / 단위: 백만 달러			
한 → 인도 교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출품 : 철강관, 반도체, 합성수지,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등 ○ 주요 수입품 : 석유제품, 알루미늄, 정밀화학원료, 농약 및 의약품, 식물성물질 등 자료: 무역협회(MTI 3단위)		
인도 → 세계 교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입품 : 석유제품(HS 27), 보석류(HS 71), 전자기기(HS 85), 일반기계(HS 84) 등 ○ 주요 수출품 : 석유제품(HS 27), 보석류(HS 71), 의약품(HS 30), 곡류(HS 10) 등 		

* 주: 인도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4월부터 해당연도 3월

* 자료: 인도중앙은행(RBI), 인도통계실행부(MOSPI),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CMIE, GTA, IMF

II. 인도 정치·경제 동향

1. 정치동향

- 2014년에 집권한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신속한 정책, 책임 있는 정부를 모토로 기업환경 개선과 부정부패 척결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
 - * 최소 정부, 최대 거버넌스를 슬로건으로 부처 통폐합, 혁신 마인드 확산
- 2016년 말 고액권 화폐 통용금지 조치로 역풍을 맞이하였으나, 2019년 5월 인도 총선에서 모디 정부는 단독과반, 의석수 확대 등 압승을 거두며 2기 정부 국정동력을 확보, Digital India 2.0, 인프라 개선 등 핵심 경제정책을 보다 추진력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토대 마련
 - * '21년 3월-5월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정부의 방역 실패에 대해 정부 책임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모디 총리는 최근 담화('21.6.7)를 통해 백신 공급 확대 천명

2. 경제동향

- 현 정부 집권(2014년) 이래 7%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다가, 2018년 이후로 경제성장률 지속 하락.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2020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사상최저치를($\Delta 24.4\%$) 기록한 바 있으나,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3분기 경제성장률은 플러스 반등. 정부는 2020/21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을 -8% 수준으로 전망했으나, 기대보다 높은 -7.3%의 성장률 기록. 2021/22 회계연도 1분기에는 전년 기저효과로 인해 20.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사상최고치의 분기 성장률 달성

<최근 3개년 인도 GDP 성장률 (단위 : %)>

회계연도	1분기 (4-6월)	2분기 (7-9월)	3분기 (10-12월)	4분기 (차년도 1-3월)	연간
2018/19	8.1	7.1	6.6	5.8	6.1
2019/20	5.0	4.5	4.7	3.1	4.2
2020/21	$\Delta 24.4$	$\Delta 7.4$	0.5	1.6	$\Delta 7.3$
2021/22	20.1	-	-	-	9.5(E)

* 자료: 인도 중앙은행(RBI)

- '17년 7월 통합간접세(GST) 도입, '19년 9월 법인세 인하. '20년 9월 노동법 통합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경제개혁 지속
 - * (통합간접세) 기존 지방별로 상이한 10여 가지의 간접세 항목을 GST로 통합
 - * (법인세) 기존 30%의 법인세를 22%로 인하하였으며, 신규 제조업체의 경우 17%까지 법인세 인하
 - * (노동법) 다수의 개별법에 산재한 노동법을 4개의 기본법으로 통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경제부양 정책, 연달아 발표
 - * ('20.3) 의료분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조 7,000억 루피(한화 약 44조 원) 배정
 - * ('20.5)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0.97조 루피(한화 약 340조 원, GDP 10%) 투입
 - * ('20.10) 도로, 항만, 방위 등 인프라에 7,300억 루피(한화 약 11조 1,608억 원) 배정
 - * ('20.11) 일자리지원, 주택건설,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을 위해 2조 6,508억 루피(한화 약 4.1조 원) 배정
- Self-Reliant India 정책 강화
 - Make in India 2.0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시대 對中 의존도 감소 및 자국 제조업 육성, 수출 강화를 위해, **14개 주요 산업분야 대상**, 약 626조 원 규모의 생산연계 인센티브(Product-linked Incentives, PLI) 도입
 - * (14대 분야) 모바일 및 관련 부품, 전기전자, 의약, 화학전지 배터리, 자동차 및 부품, 전기자동차, 통신기기, 식품가공, 섬유 제품, 백색가전, 태양광 PV모듈, 의료기기, 철강, 전기차
 - 2021/22 회계연도 연방예산안 내, 인프라 구축·고용 창출 등을 중점으로 전년 대비 14.5% 증액한 34.83조 루피(한화 약 532조 원) 편성

III. 한-인도 무역·투자 동향

1. 한-인도 무역 동향

□ 한-인도 교역

- 양국 무역규모는 한-인도 CEPA(2009년 체결) 기점으로 대폭 증가, '11년 200억 달러 돌파 후 점차 감소하다 '17년 200억 달러 재달성. '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2015년 수준인 168.4억 달러 기록
- '21년 8월 기준 한-인도 교역액은 149.6억 달러로 국가별 교역액 기준 12위, 수출액 기준 7위

<한국 수출입 국가 순위>

(단위 :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순위 ('21.8 수출기준)	국가명	2019년		2020년		2021년 1~8월	
		수출액 (증감)	수입액 (증감)	수출액 (증감)	수입액 (증감)	수출액 (증감)	수입액 (증감)
1	중국	1,362(-16.0)	1,072(0.7)	1,326(-2.7)	1,089(1.5)	1036(23.1)	877(27.3)
2	미국	733(0.9)	619(5.1)	741(1.1)	575(-7.1)	629(34.7)	489(24.2)
3	베트남	482(-0.9)	211(7.3)	485(0.7)	206(-2.3)	356(21.0)	157(14.9)
7	인도	151(-3.3)	56(-5.4)	119(-20.9)	49(-11.9)	100(42.3)	50(51.5)

자료: 한국무역협회

- 총 교역액은 '18년 215억 달러, '19년 207억 달러 기록 후, 코로나 영향으로 '20년 총 교역액은 전년比 18.8% 감소한 약 168억 달러
- 무역수지는 CEPA 발효 이전 5개년 간 평균 6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다 점차 증가하여, **2017년 처음으로 100억 달러 돌파**. 단, '20년은 대인도 수출이 대폭 감소(△20.9%)하고 수입은 그보다 소폭 감소(△11.9%)하여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 대비 **26.2% 감소한 70.4억 달러** 기록
- '21.1월~8월 대인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3%, 수입은 51.5% 증가

< 한국의 對인도 연도별 무역 현황 >

(단위 : 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1-8.
수 출	금 액	127.8	120.2	115.9	150.5	156.1	151.0	119.4	99.5
	증가율	12.4	-5.9	-3.6	29.8	3.7	-3.3	-20.9	42.3
수 입	금 액	52.7	42.3	41.8	49.4	58.8	55.6	49.0	50.0
	증가율	-14.7	-19.6	-1.2	18.1	19.0	-5.4	-11.9	51.5
총 교역액		180.6	162.7	157.9	200.0	214.9	206.6	168.4	149.6
무 역 수 지		75.1	70.7	74.1	101.0	97.3	95.4	70.4	49.5

자료: 한국무역협회

- (주요품목) 對인도 주요 수출품은 철강판, 반도체, 합성수지 등이며 수입품은 주로 석유제품, 알루미늄, 정밀화학원료 등

< 한·인도 주요 수출입 품목 >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

품 목	수 출				품 목	수 입			
	2020		2021.8			2020		2021.8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철강판	1,235	-39.3	1,319	79.3	석유제품	1,058	-13.3	1,134	36.1
합성수지	995	-18.9	1,057	85.8	알루미늄	745	-8.4	1,049	119.3
반도체	1,075	-26.6	858	27.6	정밀화학원료	258	-5.1	225	30.8
자동차부품	1,013	-11.9	753	27.8	농약·의약품	248	0.5	198	24.2
석유제품	492	-22.6	743	141.4	식물성물질	227	1.9	190	34.2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기준)

2. 한국의 對인도 투자

□ 투자개요

- '80년부터 '21년 6월까지 총 71.87억 달러 투자
 - '96~'97년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진출로 시작되었으며, '10년 전후 인도의 경제성장과 CEPA발효 이후 진출 확대
 - 인도가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기아자동차, 삼성전자가 인도 내 공장 증설 완료
 - 모디 정부의 주요 프로젝트인 Make in India 아래 생산연계 인센티브 (PLI), 수출지원제도(RoDTEP)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현지생산 장려

< 연도별 대인도 투자 추이 >

(단위 : 건,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년	2020년	2021년 1~6월	누적 (1980~)
투자금액	337	516	1,072	452	625	133	7,187
신고건수	270	311	410	451	308	111	4,33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투자분야 및 진출현황

- 제조업이 2021년(1~6월) 투자금액의 약 76.7% 차지

< 업종별 대인도 투자 현황 >

(단위 : 건, 백만 달러, %)

업종	2021년 1~6월			누적액(1980~)		
	투자금액	신고건수	비율	투자금액	신고건수	비율
제조업	102	65	76.7	5,896	2,452	82.0
도·소매업	2	14	1.5	348	499	4.8
운수·창고업	0	2	0	113	124	1.6
정보통신업	4	9	3.0	113	240	1.6
기타	25	21	18.85	717	1,023	10.0
총계	133	111	100	7,187	4,338	1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전자, 자동차, 화학, 금융, 상사 등 다양한 업종의 대기업이 진출하였으며, 주요 건설, 제조분야 진출

*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동반진출 형태가 대부분으로 독자진출은 소수

<투자자 규모별 대인도 투자금액현황>

(단위 : 개사, 건, 백만 달러)

구분	1980년 - 2021년 6월			
	신규법인	투자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대기업	370	5,487	1,400	7,100
중소기업	570	1,570	1,885	1,873
기타	390	130	1,053	155
총계	1,330	7,187	4,338	9,12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주: '기타'항목에는 개인투자, 비영리투자 포함

3. 인도의 對韓 투자

□ 對韓 진출사례

- 유통, 식품분야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투자가 대부분이었으나 마힌드라(Mahindra)가 쌍용차 지분 인수(4.6억 달러, 2011년), 타타(TATA)의 대우상용차 지분 인수(1억 달러, 2004년) 등 대규모 투자도 진행. '21년 3월까지 총 투자액은 7.8억 달러로 한국의 대인도 투자액(48.8억 달러) 대비 미미한 수준
- 인도의 TATA consultancy service(연락사무소, 2003년), HTC Global Service(2013년 한국 진출), Tech Mahindra(연락사무소, 2014년)와 같은 IT서비스 기업 일부가 한국에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모는 미미함.

IV. 인도 경제 특징

1. 인도 경제의 강점

- (국토) 한반도의 15배, 남한의 33배인 세계 7위의 면적으로, 대부분 평야로 이루어져 국토 활용도가 뛰어남
 - * 국가면적: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브라질, 호주, 인도 순
- (인구) 13.9억의 인구로 세계 총 인구의 18% 가량을 차지. 무한한 내수시장 잠재력,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보유
 - * '27년에는 중국의 인구(14.4억명, 세계 총 인구의 19%)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
- (경제규모) 거대한 경제활동인구를 기반으로 세계 GDP 순위 6위 기록
 - * 자료: IMF('20.10)

- **(과학기술)** 탄탄한 기초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IT, 수리·물리, 우주항공 외에도 제약 등 BT(생명공학기술) 산업 발달
- **(서비스·지식 산업)** 서비스분야 FDI가 전체 투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인도는 글로벌 서비스·지식 기반 산업의 중심국
 - * '00년4월~'21년6월 누적FDI 기준, 서비스 분야가 889.6억 달러로 전체의 16.26%
- **(FDI)**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경제가 위축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했으나, 정부의 분야별 FDI 규제 완화와 투자유치 정책으로 2020/21 회계연도 유입 FDI는 전년 동기대비 19% 증가한 596.4억 달러, 2021/22 1분기(4~6월)에는 전년 동 분기대비 168% 증가한 175.67억 달러 기록
- **(성장단계)** 풍부한 지하자원, 광범위한 산업기반, 양질의 기술 인력, 경제개방정책을 바탕으로 중장기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 진입

2. 인도시장 중점 트렌드

□ 세계의 제조 거점으로 부상하며, 친기업 정책,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 인도 정부는 제조업 진흥책, 친기업 환경조성을 적극 추진
 - * 'Make in India', 'Digital India', 州間기업환경 개선, 제조업생산 및 수출 지원정책 (PLI, RoDTEP)으로 세계의 공장 지향
 - * 간접세제 개혁완료(통합간접세 도입, '17.7.1.), 노동법, 토지 취득법 완화 추진
- 도시화 진행 속 인프라 개선 및 인접국간 연계 인프라 확대 노력
 -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 고속도로, 철도, 전력, 수처리 시설 등
 - 민간 합작 파트너십 프로젝트(PPP)를 통해 벵골만 연안국(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태국, 네팔 등)간 고속도로 연결, 항만, 전력거래, 국경무역 촉진 노력 지속
 - 2021년 인도 건설 인프라 시장 규모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고 각종 건설 프로젝트가 재개됨에 따라 전년 대비 11.6%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2024년까지 연평균 7.0%의 성장률 예상
- 코로나 19 영향으로 2020/21 회계연도 GDP 성장률은 $\Delta 7.3\%$ 기록. 그러나 기저효과와 함께 인도가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되면서, 2021/22 회계연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0% 수준 전망
 - * (2021/22 GDP 기대치) IMF 9.5%, World Bank 8.3%, Moody's 9.3%, Fitch 10.0%

3. 인도 경제 리스크

-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파키스탄 국경접경 지역의 소요사태 빈번, 파키스탄과는 양국 간 4차례 전쟁으로 역내 경제협력체제 확립 애로
 - 2017년 3월 이래 반년 동안 동북부 도크람 지역에서의 중국과 대치, 2019년 서북부 잠무 카슈미르주 등 파키스탄 접경지역 소규모 충돌 등
 - * 잠무 카슈미르주는 두 곳의 연방직할령으로 해체('19.10)
 - 2020년 6월 15일 레-라다크 지방에서 인도-중국 간 국경분쟁 발생. 분쟁에 따른 사상자 발생은 국가 교류문제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인도 전역에서 反中정서가 확대되며 대중 수입 및 투자 규제 등 발생
- **(비즈니스 환경)** 정주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가운데, 기업환경은 개선 중
 - 세계 주요 도시 생활여건 조사 시 주로 서남아 지역 도시가 하위권
 - * EIU 생활여건 조사('19): 뉴델리 118위, 뭄바이 119위, 카라치 136위, 다카 138위
 - 반면 기업환경은 급속히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불투명한 행정 처리와 제도로 인해 진출기업의 불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 세계은행 사업용이성평가(Ease of Doing Business): (2019) 100위 → (2020) 63위
 - * (BRICS·베트남) 브라질 124위, 러시아 28위, 중국 31위, 남아공 84위, 베트남 70위
- **(인프라)** 전력부족에 따른 수시 정전, 낮은 공업용수 품질, 도로 미비, 공항·항만 부족 등 인프라 미흡
- **(빈부격차)** 일일 소득액 \$2 이하의 인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배 이상 증가하여, 1억 3,400만 명에 이르며(Pew Research 보고서, 2021), 인도 NGO(Oxfam)에 따르면 상위 1%가 전체 73%의 부를 소유
- **(사회갈등)** 종교, 카스트, 농민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갈등 지속
 - 카스트 제도가 헌법으로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실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며, 모디 정부의 힌두교 중심주의로 인한 종교적 갈등 상존
 - * '08년 뭄바이 호텔 테러, '11년 델리 고등법원 폭탄 테러, '13년 인도 북동부 인도국민당 (BJP) 유세장 사건, '19년 인도 시민권 개정안 관련 시위 등 사회 불안 사건 발생
 - 2020년 6월, 농산물 산업 민영화를 위한 새로운 농업개혁 법안이 발표되면서 농민층 시위 지속
 - * 전국 2억 5천여 명의 농민들이 해당 법안을 반대하며 파업 및 시위에 참가했고 각 지역에서 시작된 농민시위는 수도인 뉴델리까지 이어짐
 - * 지속된 시위로 정부는 18개월간 법안 시행 일자를 연기할 것을 발표했으나 해당 법안을 일시적으로 시행 중단한 정부와 법안의 폐지를 요구하는 농민 간 갈등 지속 ('21.9.29. 기준 농민-정부 간의 12차례의 협상이 이루어 짐)

4. 인도시장의 잠재력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인도인

- 미국 과학자의 12%, NASA 과학자 36%가 인도인
- 과학자/엔지니어 조달 용이성 세계 1위 (세계 경쟁력 보고서)
- 글로벌 IT기업 직원 중 다수가 인도인 : MS(34%), IBM(28%), Intel(17%), Xerox(13%)
- 미국 의사의 38%, 영국의사의 1/3 이상이 인도인
- Hotmail 창시자(Sabeer Bhatia), Sun Microsystem 공동 설립자(Vinod Khosla), 펜티엄 칩 설계자(Vinod Dham)
- 구글(순다 피차이), MS(사티아 나델라), 어도비(산타누 나라옌) 등 인도계, 세계 주요 기업의 대표직 수행

- **(자동차)**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의 對인도 투자 확대 계획 발표
 - 인도 + 중동 및 서남아시아 수출을 위한 제조 허브 구축. 2019년 독일을 제치고 **세계 4위 승용차 생산국에 등극했으며**, 2021년에는 세계 3위인 일본을 제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부품시장은 2026년까지 2,000억 달러의 시장규모 기대
 - '18년까지는 내수시장을 앞세워 생산·판매율이 증가했으나, '19년부터 지속된 글로벌 경기침체와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에 의해 생산·판매율 감소
 - '21년 회계연도 상용차(CV) 판매 23~28% 증가 등 향후 산업 회복 전망

<2020년 자동차 생산·판매 대수>

(단위: 백만 대, %)

구분	세계		인도	
	차량 수	증감률	차량 수	증감률
생산	77.6	-15.8	3.4	-25.0
판매	69.5	-12.6	2.9	-23.0

* 자료: 세계자동차협회(OICA)

- 州정부는 환경오염, 석유수입 의존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으로 전기차 생산, 판매 및 구매 장려**. 현대, MG Motor, 테슬라 등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생산을 위해 계획 중
- **(유통)** 인도 소매유통 시장규모는(2018/19 회계연도 기준) 9,500억 달러로 세계 4위 규모이며, 2024년까지 1.3조 달러(Forrester Research, '21.3) 2026년까지 1.75조 달러의 시장규모 전망(FICCI, '19.10). 특히,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장으로, Amazon, 소프트뱅크, Reliance, Walmart 등 주요 기업들이 대인도 투자 확대
- **(투자)** 2021/22 회계연도 1분기(4~6월) 대인도 FDI 유입액은 전년 65.6억 달러 대비 168% 증가한 175.7억 달러

<최근 4개년 對인도 투자현황(회계연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18.4-2019.3		2019.4-2020.3		2020.4-2021.3		2021.4-6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44,366	-1.0	49,977	13.0	59,636	19.0	17,567	168.0

자료: 인도 DPIIT('21.9.29.)

- OECD는 회계연도가 아닌 2020년 기준 글로벌 FDI 유입이 전년 대비 34% 감소한 1조 105억 달러로 추정하면서, 인도는 13% 증가한 640억 달러로 3위로 발표('21.4)

<2015~2019 주요국 FDI 유입현황>

(단위: 십억 달러)

국가명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세계	2,041	1,983	1,700	1,495	1,530
인도	44	44	40	42	51
미국	468	472	277	254	246
중국	136	134	136	138	141
베트남	11	12	14	15	16

자료: UNCTAD, FDI/MNE database ('21.9.29.)

- UNCTAD는 글로벌 FDI가 전년 대비 42% 감소한 8,590억 달러이나, 對인도 FDI는 디지털 분야 투자에 힘입어 13% 증가한 것으로 추정('21.1.24)
- 주요 투자국 순위는 싱가포르 29%, 미국 23%, 모리셔스 9% 順('21.3.5)

<국가별 對인도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누적 기준)	국가	2019/20 회계연도	2020/21 회계연도	2021년 4-6월	2000.4월-2021.6월	
					누적액	비중
1	모리셔스	8,241	5,639	3,298	151,647	27.71
2	싱가포르	14,671	17,419	3,305	118,393	21.64
3	미국	4,223	13,823	1,951	45,553	8.32
4	네덜란드	6,500	2,789	1,093	37,734	6.9
5	일본	3,226	1,950	539	35,987	6.6
6	영국	1,422	2,043	345	30,599	5.6
7	독일	488	667	333	13,195	2.4
8	케이맨 제도	3,702	2,799	1,319	11,654	2.1
9	UAE	339	4,203	190	11,382	2.1
10	키프로스	879	386	69	11,202	2.1
13	대한민국	496	1,192	88	4,971	0.9
19	중국	164	225	3	2,442	0.5
총 FDI 유입액		49,977	59,636	17,567	547,321	100.0

자료: 인도 DPIIT('21.9.29.)

V. 인도 생활 정보

1. 기후 및 복장 정보

□ 인도 기후 및 복장 정보

- 인도 대부분의 지역이 아열대 기후이나 뉴델리를 포함한 북부 지역의 경우 여름-겨울 간 기온 차가 심함. 겨울에 북부 지방 여행을 계획할 시 두툼한 옷 준비가 필수적이며, 그 외 계절도 태양빛이 강렬하므로 반팔 외에 긴 팔 의복을 준비하는 것이 좋음
- 일반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는 여름으로, 특히 5~7월은 최대 50C°(평균 35~45C°), 동절기(12월말부터 2월까지)에는 최저 3~5C° 이하로 내려감
 - * (여름)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므로 여름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자외선 강도가 세기 때문에 피부 보호를 위한 얇은 옷(팔 토시, 손수건 등)을 준비할 것을 권장
 - * (봄·가을) 행사기간에는 아침, 저녁은 조금 쌀쌀한 편이나 낮에는 덥게 느껴짐. 복장으로 봄·가을 옷을 준비할 것을 권장
 - * (겨울) 인도 내 난방시설은 열악하기 때문에 두꺼운 옷 보다 얇은 옷 여러 개를 준비할 것을 권장. 필요하다면 핫팩 등 보온용품을 준비하는 것도 좋음
- 8~10월에는 우리나라 장마 시즌처럼 폭우가 쏟아지며, 배수시설이 낙후된 곳이 많아 폭우 발생 시 지하차도 및 차량이 침수될 수 있어, 외출에 유의

2. 기타 주의사항

- 인도의 치안 여건은 여타 개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외국인 여행자의 입장에서는 사기 등 여러 형태의 범죄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어 범죄 주의 요망
- 관광지 등에서 현지인이 친하게 다가와 사진촬영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주의 요망
- 정치 군사적으로 민감한 카슈미르, 북동부 2~3개주, 안다만 제도 등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별도 허가가 요구되며, 이들 지역은 테러에 의한 집단 사망 사고가 종종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 요망
 - * 5월 28일 기준, 인-중 국경분쟁 발생지인 라다크 지역은 출입 불가

□ 교통

- 차량호출서비스 우버(Uber) 및 올라(Ola)가 있으며 경로안내, 요금 등 서비스가 자동적으로 적용. 한국에서 미리 어플을 설치한 후 해외결제카드와

전화번호 등록만으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

- 보행 중 지나가는 택시처럼 잡아타는 오토릭샤가 있으며, 오토바이 엔진 뒤에 승객 칸(통상 2~3인 자리)을 붙인 3륜 형태가 대부분. 주로 현지인 대상 교통수단으로 출장자에게는 사용을 권하지 않음
- 일반 시내버스의 경우 요금이 저렴하지만 연결 노선이 불편하고 언어 소통 등 문제가 있어 출장자의 경우 사용 불가

□ 위생

- 장염은 여행 또는 출장으로 인도에 온 사람들이 가장 걸리기 쉬운 질병으로, 특히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음
- 식당이나 호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식수가 아닌 병으로 된 생수를 사서 마시는 것을 권고. 호텔룸에 비치된 생수의 경우 새 것인지 잘 확인 해보고, 양치할 때에도 생수를 이용

□ 코로나19 관련 출입국 정보

-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환경에서 우리 기업인의 출입국을 지원하고자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기업인 출입국 종합 지원센터』를 운영
- 출입국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인은 콜센터(1566-8110) 또는 홈페이지(www.btsc.or.kr) 등을 통해 출입국 관련 종합안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참고) 2021년 10월 1일부로 WHO에서 승인된 백신접종자에 한해 인도에서 한국입국 시, 격리면제를 시행 중.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서 ([확인](#))

□ 인근 종합병원

병원명	주소	전화
FORTIS Hospital	44, Opposite HUDA City Centre, Gurugram, Haryana 122002	+91-97300-01540
Apollo Hospital	Sarita Vihar, Delhi Mathura Road, New Delhi - 110076①②③④	+91-011-2692-5858 / 5801
AIIMS Centre	Ansari Nagar, New Delhi - 110029	+91-011-2658-8500 / 8700
Max Hospital	2, Press Enclave Road, Saket New Delhi, Delhi 110017	+91-011-2651-5050
긴급전화 (경찰) 100 (화재신고) 101 (앰블런스) 102 (전화번호 안내) 197 (관광청 긴급 헬프 라인) +91-11-2336-5358		

VI. 주요 유적 및 명소

1. 뉴델리 지역

□ India Gate(인디아 게이트)



- Rajpath (왕의 길이라는 뜻으로 넓은 중앙도로를 의미) 동쪽 끝에 있는 높이 42m의 승리의 아치. 파리의 개선문을 바탕으로 1931년 설립된 문 모양의 기념비로,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전사한 영국령 인도 제국의 군인 약 8만 5천명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짐. 벽에는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전사한 인도 병사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
- Rajpath 서쪽 끝에는 영국 건축가 루텐스경에 의해 설계되어 1929년에 완공된 Rashtrapati Bhavan (대통령궁)이 위치하고 있음.

- 대통령궁에서 볼 때 오른쪽 (South Block)에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왼쪽(North Block)에는 재무부와 내무부 건물이 위치함.
- 이곳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는 뉴델리와 올드델리 접점이자 델리의 중앙인 Connaught Place(코넛 플레이스)가 위치. 영국 조지5세의 형제인 코넛공(Duke of Connaught)의 인도방문을 기념하여 영국이 만든 광장으로, 각종 관공서, 상가 등이 밀집해 있음.

□ National Museum(국립박물관)

- 인도 역사를 소개하는 유물들을 다수 소장. 인도 역사의 기원인 인더스 문명에서부터 마우리아, 굽타, 간다라 문명 등 인도의 중세와 현대에 이르는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음. (10:00~17:00, 월요일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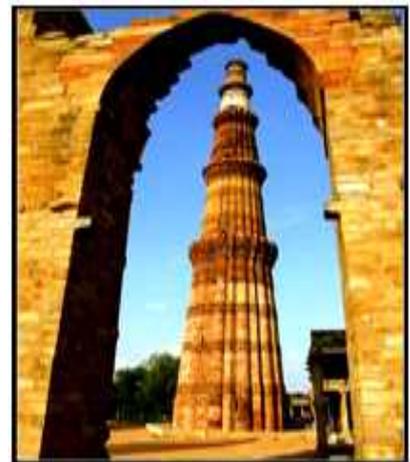
□ National Gallery of Modern Art(국립현대미술관)



- 2009년 1월 19일 정식으로 개관하여 인도 현대미술 최고의 작품들을 다양한 전시와 주제를 통해 소개하고 있음. 출판국이 따로 있어 지금까지 300권이 넘는 작품을 발간하였으며 우리나라 이세득 작가의 작품도 소장되어 있음 [11:00~18:30(주말은 20:00까지), 월요일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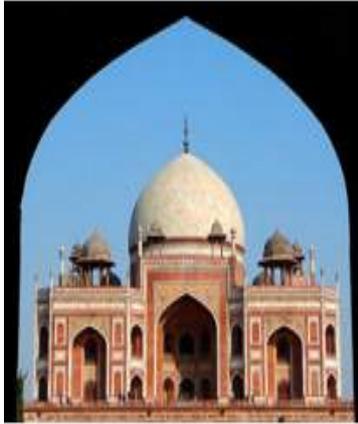
□ Qutab Minar(꾸뚝 미나르)

- 꾸뚝 미나르는 1192-1368년에 걸쳐 오랜기간 건립한 73m, 5층 규모의 거대한 탑으로, 밑부분 지름은 15m나 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가늘어져 꼭대기의 지름은 2.5m에 불과함. 오늘날 이 탑은 수직선에서 60cm쯤 기울어져 있으며 예전에는 탑 속으로 올라가 발코니에서 주위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었지만, 1981년 인명사고 이후 금지됨.



- 한편 꾸뚝 미나르과 같은 장소에 위치한 Iron Pillar(철 기둥)는 높이 7.2m의 철순도 99.9% 쇠기둥임. 기둥에 새겨진 6줄의 산스크리트 문자에 의하면 이 쇠기둥은 원래 비하르에 있는 비슈누(Vishnu)사원 마당에 굽타 왕조의 찬드라굽타(Chandragupta) 2세를 기념하여 세워진 것으로 추정됨. 4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임에도 녹이 슬지 않아 고대 주조기술의 신비로움을 보여줌. (10:00~17:00 개장)

□ Humayun's Tomb(후마윤 무덤)



- 세계 문화유산중 하나로 1565년 무굴제국의 왕비였던 하지 베굼이 남편인 제2대 황제 후마윤을 기리기 위해 건설. 붉은 사암과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묘단 벽에는 아치형의 작은 입구들이 많은데, 몇몇 입구는 무굴제국 왕실 가족 무덤과 이어져 있음. 본 묘는 희고 검은 대리석 및 붉은 사암으로 지어졌으며 중앙의 팔각 석실에는 후마윤 묘석이 들어 있음 (06:00~18:00 개장)

□ Swaminarayan Akshardham complex(악샤르담)

- ‘신의 거주지’를 의미하는 이곳은 힌두교들에게 영원한 헌신, 순결, 평화를 상징하는 장소. 1968년 힌두교 단체 지도자인 요기지의 제안으로 축조되었으며 약 8,000명 이상이 붉은 사암과 백색의 대리석을 사용하여 2005년 완공.
- 대표 건축물인 스와미나라얀은 높이 43m, 넓이 96m, 폭 109m의 대형 건축물로 9개의 돔과 234개의 기둥 및 조각상 외벽에는 동물·식물·무희 등이 새겨져 있음. (09:30~20:00 개장)



* 악샤르담 분수 쇼 시간 일몰(약 : 19:15) 이후, 24분 동안 진행

2. 아그라 지역

□ Taj Mahal(타지 마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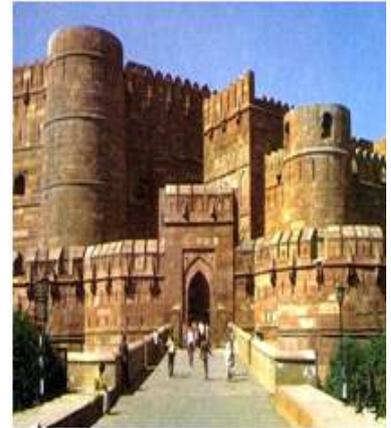


- 타지마할은 아그라 신시가지 동쪽 야무나 강변에 위치함. 무굴제국의 왕인 샤 자한이 15번째 아이를 낳다가 1629년 사망한 부인 뭉타즈 마할을 기리기 위해 1631년부터 짓기 시작하여 22년만인 1653년에 완공

- 이란 출신의 우스타드 이샤(Ustad Isa)에 의해 설계가 완성되었고 터키, 이탈리아, 프랑스 출신의 2만여 명의 장인들이 건설에 참여함.
- * 건축자재의 운반을 위해 천여 마리의 코끼리 사용
- 가로 300m, 세로 530m의 거대한 정문은 붉은 사암으로 만들어졌고, 정문의 아치를 빠져나가면 넓은 마당에 수로 (水路)를 둔 전형적인 무굴 양식의 정원과 분수가 펼쳐짐 (06:00~18:00 개장, 금요일 휴장)

□ Agra Fort(아그라 성)

- 야무나 강변에 위치한 아그라 성은 1565년 무굴제국의 악바르 황제가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그의 손자인 샤 자한에 의해 부분적인 추가 공사가 완성 됨. 악바르 시대 때 이 성은 단순한 군사 요새였으나, 손자 샤 자한은 내부에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추가로 만들어 자신의 궁으로 사용
- 성벽은 2.5km 길이로 성을 감싸고 있으며, 그 밖은 10m 넓이의 해자로 둘러싸여 있음 (06:00~18:00 개장)



□ Pathepur Sikri(승리의 도시)



- 무굴 제국의 악바르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인 파테푸르 시크리는 아그라에서 자이뿌르 방향으로 37 Km 떨어진 곳으로, 1573년의 구자라트 전쟁 승리를 기념해서 이름 붙인 도시
- 이 도시는 악바르가 성자(세이크 살림 치스티)의 예언대로 아들을 얻은 기쁨으로 성자가 거주하는 이곳에 대규모 성을 건설. 이 후 16년 동안 무굴제국의 수도로 지정함.
- 그 후 무굴제국은 라호르를 거쳐 아그라를 수도로 이전하였으며, 승리의 도시는 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수도 및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 채 황폐한 도시로 변모함.
(06:00~18:30 개장, 금요일 휴장)

Ⅶ. 주요 기관 연락처

□ KOTRA 뉴델리 무역관

- 주소 : 3rd Floor, Asset 307, Worldmark 3, Aerocity, New Delhi - 110037
- 전화 : +91-11-4230-6300 / 팩스 : +91-11-4230-6301
- E - Mail : reception@ktcdelhi.net
- 홈페이지 : <http://www.kotra.or.kr/KBC/newdelhi/KTMIUI010M.html>
- 근무시간 : 월-금, 08:30 - 17:30
- 무역관 직원 및 연락처

성명	직위	전화번호
빈준화	지역본부장	+91-11-4230-6304
박영환	부장	+91-92053-95566
이인규	부관장	+91-11-4230-6306
최명례	인도비즈니스협력센터 운영팀장	+91-11-4230-6307
김한나	차장	+91-11-4230-6308
장명철	차장	+91-11-4230-6309
채정훈	과장	+91-11-4230-6311

□ 기타 주요기관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91-011-4200-7000 +91-99-5359-6008(긴급콜) * 업무시간 : 09:00-12:30, 14:00-17:00 (월-금)	http://overseas.mofa.go.kr/in-ko/index.do
재인도 한인회	+91-0124-651-4443	http://indo.korean.net/
한국 관광공사	+91-0124-464-9191	http://www.visitkorea.in/

Ⅷ. 인근 호텔 정보

□ KOTRA 뉴델리 무역관

호텔명	Andaz Delhi - a concept by Hyatt (5성급 호텔)	
주소	Asset No.1, Aerocity, New Delhi, Delhi 110037	
전화번호	+91-011-4903-1234	
홈페이지	https://www.hyatt.com/en-US/hotel/india/andaz-delhi/delaz	
1일 숙박비	■4,928루피(한화 약 7.9만원)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약 18분 소요(11Km) ◆ 델리 공항(Indira Gandhi International (IGI)에서 약 16분소요(8.3km) ◆ KOTRA 뉴델리 무역관에서 약 5분 소요(0.9km) ◆ 루피-원 비율은 1:15.98로 책정 	
호텔명	The Leela Ambience Gurugram Hotel & Residences (5성급 호텔)	
주소	National Highway 8, Ambience Island, DLF Phase 3, Sector 24, Gurugram, Haryana 122002	
전화번호	+91-0124-477-1234	
홈페이지	https://www.theleela.com/en_us/	
1일 숙박비	■4,760루피(한화 약 7.6만원)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약 27분 소요(20Km) ◆ 델리 공항(Indira Gandhi International (IGI)에서 약 20분소요(12km) ◆ KOTRA 뉴델리 무역관에서 약 16분 소요(7km) ◆ 루피-원 비율은 1:15.98로 책정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